광주시장에 출마하기로 한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 네번째) 등 국민참여당 시도지사 출마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한 뒤 손을 맞잡고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장 출마 친노 인사 왜 따로 노나

이용섭 민주·이병완 참여·정찬용 무소속 후보로

親盧-非盧 양강압축 기대… 단일화 가능성도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0일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이용섭 의원,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함께 친노(친 노무현)인사 3명이 광주시장 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됐다.

이병완 전 실장은 이날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에서 "광주를 이제 정치수도와 문화수도로, 민주주의의 성지에서 복지광주·경제광주·민생광주로 바꾸는 비전을 제시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이용섭 의원은 지난 1월11일 "시민과 함께 위기에 처한 광주와 호남의 새로운 역사를 재창조하기 위해 나섰다"며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지지층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에 앞선 지난해 12월21일 정찬용 전 수석은 출마선언을 하고 일찌감치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이들 친노인사 3명의 출마에서 특징적인 것은 모두 당이 다르다는 것. 이 전 실장은 국민참여당 소속이지만, 이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다. 이에 비해 정 전 수석은 무소속이다.

이들이 왜 이같이 각개전투를 하는 걸까. 3명이 힘을 합쳐도 광주시장 자리에 오르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도대체 왜 개별로 선거를 치르는지 의아해 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우선 이들 3명은 그다지 친한 사이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이번에 '따로 노는' 것이 그다지 새롭지 않다는 것이 한 친노인사의 전언이다.

그럼에도,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민주당 소속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출마예상지역인 서울을 피해 경기도로 간 것과 비교할 때 이 전 실장의 광주시장 출마는 다소 이례적이다. 따라서 지역정가에서는 이 전 실장이 광주시장 출마를 '호남지역 반민주당 연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시도로 해석하고 있다.

정 전 수석의 경우 애초 민주당을 선택할 것이란 예측을 깨고 무소속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지난 2월2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민주개혁세력의 대단결과 선거 승리를 위해 제 자신을 바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연대를 위해 무소속으로 남겠다는 것이다.

결국, 이 전 실장과 정 전 수석은 민주당 후보로 '박광태 시장이나 강운태 의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 경우 본선에서 반민주연대를 이끌어 양자대결구도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한 친노인사의 설명이다.

때문에 향후 선거과정에서 이들 3인 간에 후보단일화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이용섭 의원은 지난 1월 출마 기자회견과 지난 2일 연이어 "민주·민생·혁신세력의 통합이 필요하고, 단일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친노세력이 이번 지방선거가 노무현 서거 1주기 10일 후에 치러진다는 점에 착안, '노무현 대 이명박'의 선거구도를 노리고 있다"며 "하지만, 민주당과 함께하지 않는 그 어떤 구도로도 이명박 정권에 대항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경선 논란 한창인데 한가하게 외유라니…

민주 공심위원 강기정·우윤근 의원 해외 출장 빈축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의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등을 놓고 광주·전남지역에서 논란과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을 대표해 중앙당 공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윤근 의원(광양시)과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이 해결책을 고심하기보다는 한가로이 해외 출장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광주시장 후보 경선 등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던 강기정 의원은 한·파키스탄 의원외교 협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지난 2일부터 파키스탄과 스리랑카 등을 방문한 뒤, 10일에야 입국했다.

강기정 의원 측에서는 의원 외교 차원이었다는 입장이지만 해외 출장기간 동안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의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논란이 크게 확산됐다는 점에서 광주 출신 공심위원으로서의 책무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강 의원의 해외 출장기간 동안 광주 북구청장 경선이 시민공천배심원제 적용 2차 검토 대상으로 부상했다는 점에서 지역 민심 청취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남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한 중앙당 공심위원인 우윤근 의원도 법조인력 개선 시찰을 명분으로 지난 7일 유럽으로 출국, 오는 16일 귀국할 예정이다.

우윤근 의원이 해외에 머무르는 동안,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 경선 시기가 변경된 것은 물론 국민참여경선 방법 등을 둘러싸고 후보군의 갈등이 크게 증폭됐다.

특히, 여수, 순천 등 전남 동부권 기초단체장 경선에서의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을 둘러싸고 현역 단체장들의 격렬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 의원이 귀국하는 16일에는 경선 방법이 결정될 전망이어서 사실상 공심위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시장 국민참여경선이 개혁공천"

민주 박주선 의원 시민단체 비난에 반박

광주시장 경선방법과 관련해 광주지역 시민단체와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 사이에 '시민배심원제도 찬반 공방'이 일고 있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10일 광주시장 경선방법과 관련해 "특정 시민단체가 특정 경선방안을 지지하고 민주당 공천논의에 반개혁 운운하며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9일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인 '광주 희망과 대안'이 "박 최고위원이 (시민배심원제를) 끝까지 반대해 민주당 개혁의 암초로 낙인찍히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비판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시민배심원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자신을 비난한 '광주 희망과 대안'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최고는 "민주당은 당헌상(제96조) 당의 주인인 당원과 주민 자치의 주인인 시민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을 경선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민참여경선이 최선의 개혁공천"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구 140만 광주시를 이끌어갈 시장 후보를 100명의 시민과 외부인사 100명이 추천한다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며 "특히 16개 광역시·도 선거구 중 유독 광주시장 후보만 아무런 이유와 명분도 없이 시민공천배심원 제도를 적용하려는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헌·당규상 국민참여경선 원칙을 포기하고 시민배심원제를 적용하려는 것은 광주시민과 당원의 역량을 헐뜯고 무시하는 처사"라며 "그 이면에는 특정 정파의 인위적 물갈이 시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정 시민단체가 당내 공직후보 경선논의와 관련해 반개혁 운운하며 특정정치인을 매도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정체성과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며 TV토론을 제안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대식씨

김문일씨

배종덕씨

정 훈씨

후보 기근 옛말… 한나라 전남지사 경선 4파전

6·2 지방선거에 출마할 한나라당 전남도지사 예비후보들의 출마선언이 잇따르면서 그동안 '후보 기근'에 시달려왔던 한나라당이 오랜만에 민주당 텃밭인 전남에서 치열한 경선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10일 한나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전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후보는 ▲김문일 담양·곡성·구례 당협위원장 ▲김대식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정훈 국민통합운동본부 총재 등 3명이다.

여기에 배종덕 한나라당 중앙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이 조만간 공식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어서 한나라당 전남지사 후보 경선은 '4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특히 김대식 전 사무처장과 관련한 한나라당의 전략공천설에 대해 나머지 3명의 후보가 "전략공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강력 반대하며 후보간 연대 움직임까지 보여 치열한 경선전을 예고하고 있다.

광양 출신 정 총재는 이날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일당독식 정치구조는 지역발전은 고사하고 정치선진화를 이뤄낼 수 없다"면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정치혁명을 만들 것"이라며 전남지사 선거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앞서 지난 4일 공직사퇴와 함께 서울 국회에서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영광 출신 김대식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11일 전남도의회에서 출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표밭갈이에 나설 계획이다. 또 정몽준 대표 계열로 분류되고 있는 김문일 위원장은 후보군 중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한 뒤 전남지역을 돌며 지지층을 다지는 등 본격적인 경선 준비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 중앙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인 배종덕 전 목포시지구당위원장이 오는 17일께 전남지사 출마선언을 하고 경선전에 뛰어들 예정이다.

한편 한나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로는 정용화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이 홀로 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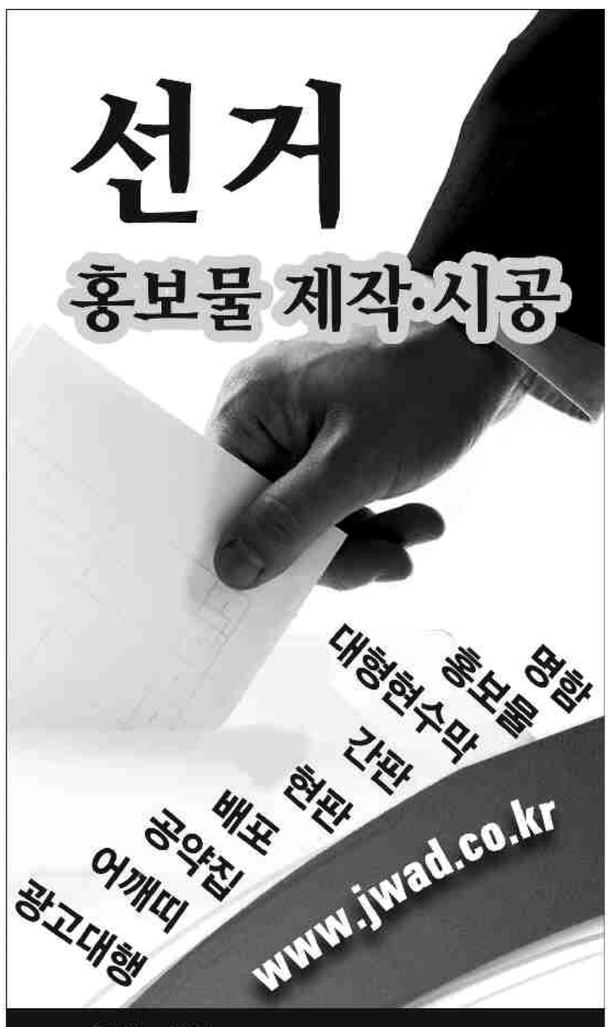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바다공인중개사
☎ (063)581-5909
핸 010-8004-5900
(전북 서해안, 새만금 전문업소)
새만금~변산~고사포~격포~상록~모항 해수욕장까지의 투자 벨트형성
▶팬션건물(투자,직영,임대)
• 대지 300평 건물 140평
: 매가 7억
- 직영시 월 수입
최저 1300만원 이상 발생
- 융자 2억 이상 가능
▶투자용 팬션 용지
• 150~300평
: 평당 50~100만원
- 해수욕장 주변으로 배산임수를 갖춘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곳으로 투자 최적합.
▶투자용 전원주택 용지
• 150~300평
: 평당 25만~35만원
- 새만금 밀집지역을 탈피하고 한가로운 전원 주택지를 찾는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새만금 관광시대 임박으로 팬션투자시 광주지역 원룸부지의 절반 금액으로 수입은 3배이상 금리는 년 25%이상 보장되는 물건만 취급
◉ 2010년 4월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 개통으로 지금이 투자적기!

금산공인중개사
T.881-5686 H.011-801-5354
(서광주역 건너 순환도로변)
상무 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위치
-상무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 옆(4면 광로변)
■대지면적
-약 2,850㎡(180평 분할가능)
■3.3㎡당 매매가
-1,300만원
■공동 복합 APT 주택가능
(최근 도시계획 변경)
※종합병원/상가/오피스/유흥가능
장점
① 주상복합(공동 APT) 가능
② 광로변 최고 광고 효과
③ 롯데마트, 상무병원 건너 삼성화재 옆 최고의 상권
④ 최고의 교통 접근성 (광주시청 접근성과 광-송간 5 · 18로 광로변)
⑤ 상무 신도심 중심 상업, 방화지구
⑥ 10층 신축건물 옆

전통주 제조 연수생 모집

우리 전통주를
이제는 집에서 직접
만들어 드세요.
막걸리, 약주, 증류주
과일주, 리큐르, 기타주
(창업도 가능함)
모집기간
조선대학교 : 3월 3일까지 접수
호남대학교 : 3월 5일까지 접수
수업기간(4개월 15주)
조선대학교 : 3월 8일 ~ 6월 말
호남대학교 : 3월 10일 ~ 6월 말
문의전화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062) 230-7700~3
호남대학교 평생교육원 :062) 370-8211~3
강사 : 010-4568-0700

선거
홍보물 제작·시공

대형현수막 홍보물 명함
광고대행 어깨띠 약봉투 배포 현판 간판
www.jwad.co.kr
종합광고대행사
(주)정원애드 062)373-2285

한라 친환경 전동운반차
농림부 농기계 구입자금
융자 연 3%
(1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농촌, 과수원·농장에도~
하우스에도~
마트·시장에서 배송할때도~
창고에도~

월 전기료 5,000원
안전한 운송수단을 원하신다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라 전동운반차로 바꾸세요!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 딜러모집
농기계 관련 사업지
유사업종 경험자
무공해 친환경 전기에너지를 사용합니다
• 월 전기료 약 5,000원 정도로 부담이 적음
• 휘발성 맨세대는 사용하여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A/S
• 부품의 국산화로 안정적인 A/S가 가능합니다.
장기저리 농협융자를 통한 초기 구매부담 최소화
• 판매가의 90% 장기저리융자, 1년 거치 5년 상환, 연리 3%
• 충전시 40km운행(적재량 200kg)
일반 유류 운반차 유류비용으로 한라 전동 운반차 자금 가능
믿음과 화합으로 번영하는 한라그룹
한라웰스텍(주)
HALLA Welthtech Corp.
구입문의 TEL 062) 956-8823
061) 852-8896
H·P 010-9468-3282